



2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유흥업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차라리 죽여라, 다음달부터 영업한다”

유흥업소 업주들 “방역당국 유흥업소 사형선고” 하소연
8개월간 영업 못해… “다음달부터 영업 재개할 것” 엄포
전북도, 현 상황 정부에 전달… “영업행위는 어쩔 수 없이 대응”

공현철 기자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전주 아종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수개월간 업소 문을 열지 못했다. 수입이 한 톨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월세 500만 원과 세금, 공과금 등 1,000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최근 3개월은 월세조차 내지 못해 이미 보증금도 바닥났다.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에 폐업도 생각했다. 하지만 가게를 비우기 위해서는 내부시설을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이마저도 포기했다.
김씨는 “노래방이나 카페, 종교시설은 어느 정도 손통을 띄워줘 놓고, 왜 유흥업소만 영업 중단을 이어가냐”며 “코로나19 예방 취지는 이해하나 우리도 살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은 40% 중과세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16배에 이르는 재산세와 취득세까지 감당해야해 그 만큼 영업 금지 기간이 길어질 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다.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영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유흥업소 영업제한 연장 등이 포함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흥·단란음식업 중앙회 전북지회는 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은 허용하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 휴업과 관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이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총 8개월 여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생계

의 타전을 잃어버린 유흥·단란 업소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흥업은 대체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생활고 해결을 위해 2금융권, 카드론 등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생계를 위협받은 업주들은 대리운전이나 쿠팡 서비스, 식당 일 등에 뛰어 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현수 한국유흥·단란음식업 중앙회 전북지회장은 “그동안 업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하는 31일에도 유흥업소 영업 금지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업주들의 현재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도와줄 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 자전거도로 21km 개설·정비

전주시, 올해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11개 노선 개설·정비
가련광장~금암광장 자전거도로 개설, 팔각정로와 유연로, 서신로 정비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43억3,300만원을 투입해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등 11개 노선, 21.2km 구간 자전거도로를 개설·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주요도로인 기린대로와 백제대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기로 했다. 지난 2019년 호남제일문에서 가련광장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시는 올해 잔여 구간인 가련광장부터 금암광장까지 5.6km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잇기로 했다.

또 오는 2023년까지 경기장내거리에서 백제교, 꽃밭정내거리에서 이르는 백제대로 11



km 구간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팔각정로와 유연로, 서신로 등 2.57km 구

간의 노후화된 자전거도로를 쾌적하게 정비하고,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의 구분을 명확히 해 이용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 단차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자동차와 자전거 이용자 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과의 상충 구간에는 암색색으로 색상을 달리해 포장하기로 했다.

시는 금암광장부터 효사랑요양병원까지 팔달로 구간의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삼천교부터 세내교까지 약 0.9km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분리해 하천 둔치 내 보행자와 자전거 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롯데백화점 인근 전주천에 위치한 자전거 진출입로도 신규 개설해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권동혁 기자

미취업 청년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 강화

시, 내달 2일까지 ‘청년쉼표, 프로젝트’ 12·13기 참여자 120명 모집
졸업·중퇴 후 2년 경과규정 폐지, 개인심층상담 횟수 4회로 확대
만18~39세 미취업 청년 대상 심리검사와 집단상담, 150만원 활동수당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심리상담도 강화한다.

21일 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심리 상담과 활동수당을 지원, 청년의 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12·13기 참여자 120명을 내달 2일까지 모집키로 했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최대한 많이 돕기 위해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돼야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개인심층상담 횟수는 당초 3회에서 4회까지 가능토록 확대했고, 고위험군의 경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추가적인 상담과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별 심리검사와 해석 및 심층상담, 그룹별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취업준비와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인

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도 제공받게 된다. 더불어 힐링캠프와 사후 심리검사, 청년쉼표 에세이를 통해 심리상담 전후 심리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재도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재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재정일자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뒤 다음 달 17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권동혁 기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최소화

현장체험학습비·교복비 지원에
전북도교육청, 210억9,700여만원 투입

전북도교육청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비 지원 계획’을 마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올해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113억3,700여만원과 교복 구입비 97억6,000여만원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고·특수학교 수학여행 비용으로, 초등학교 11만4,000원, 중학교 15만2,000원, 고등학교 23만8,000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 일일행이나 교내체험학습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轉)입생 전원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현물 지급으로 학교주관 공동구매 참여가 원칙이다. 공정할 입찰을 통해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착용 브랜드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위화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현철 기자

전주시, 선순환경제·도시재생 1번지 만든다

‘사회연대가 살아있는 사람중심 도시 전주’ 비전으로 8대 추진전략 제시
사회연대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화폐 확대로 지역선순환경제 실현

전주시가 올해 인후·반촌지역과 팔복동 등 도시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로 했다.

시는 21일 사회연대지원단 신년브리핑을 통해 ‘사회연대가 살아있는 사람중심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사회연대·공동체·도시재생 분야 8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8대 추진전략은 △사회연대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지역화폐 확대로 지역선순환경제 실현 △주민주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공동체성 강화 및 공동체 지변 확대 △마을공동체 지속·지역 활성화 도모 △사람·생태·문화 중심의 전주형 도시재생 등이다. 먼저 시는 사회혁신전주와 성평등전주 등 소통협력공간을 거점으로, 사회혁신 리빙랩, 사회혁신 한마당 등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또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동네마트 입점을 계속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재정적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시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을 지난해보다 4배 확대된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혜택을 늘리는 등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용자와 가맹점이 기부할 수 있는 모델도 도입해 공동체성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공현철 기자

전주대, 전주 관광산업 활성화 앞장

도내 여행사 4곳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협력

전주대학교가 전주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에 뛰어들었다.

전주대 관광마케팅RCC(전주DMO)는 21일 전주시 지역 해외 여행사 4곳과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관광 상품 개발·홍보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주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업 책임자인 최영기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



제는 관광업계도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며 “협약에 참여한 여행사들과 함께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새전북신문
THE SAKURABA SHINBUN
구독신청 063) 230-5712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신문,
새전북신문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9
010-3682-3233

서정우 삼익악기

·

Viscount

'전공자용 울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오르간 전문 취급'

김슨기타 전문 총판

STRUMENTI | SEOJUNGWOO

서정우